

'남원참미' 대표브랜드 만든다

올 10개 단지 342ha 맞춤형 재배... 현장 수매 철저 관리

남원시가 남원의 대표 브랜드 쌀인 '남원참미'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쌀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2015년 남원참미 품종을 받았고 향이 좋은 신동진 벼로 바꾸고 맞춤형 재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10개 생산단지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동진 벼 재배 매뉴얼에 따른 육묘부터 수확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농민들은 신동진 벼 재배 유의점과 영농단계별 이행사항, 단위면적당 적정 시비량, 중간 물떼기, 적기수확 등 과학적인 사례교육을 통해 최고 품질의 남원참미 생산을 다짐했다.

이렇게 재배되는 남원참미는 탄력성, 조식성, 응집성이 뛰어나고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밥맛은 부드럽고 칼기는 뛰어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원참미는 수확도 남다르다. 수확 전 전수조사와 샘플을 채취하여 단백질 함량 분석 후 타품종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매하고 있다.

남원참미는 지난해 남원 최초로 참미단지 전면적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 하였다. 또, 농협RPC 대



지난 22일 10개 생산단지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동진 벼 재배 매뉴얼에 따른 육묘부터 수확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표 브랜드 쌀 평가에서 '남원참미'가 선정됐으며, NHQ농협 인증 쌀 평가에서도 '남원참미'가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남원시는 고품질 쌀 남원참미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534백만원의 예산을 확충하고 10개단지 342ha에 대하여 남원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전량 계약재배를 맺고 철저한 재배관리를 남원쌀의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남원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잔류,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증 제도다.

/김재훈 기자

육군 35사단, 임실 농촌일손돕기 역할 톡톡

관내 감자, 양파 재배농가 적기 수확 도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육군 35사단이 임실군 농가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35사단은 해마다 일손이 부족한 임실지역 농가를 찾아 농작물 수확을 도와주는 등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육군35사단 장병들과 일손부족으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감자, 양파 등 재배농가들의 적기 수확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일손돕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사전에 신청 받았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육군35사단 군인 410여명이 참여해 감자와 양파 등 8ha 19농가의 일손돕기를 추진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농촌지역의 인력감소와 노령화·부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는 임실군의 요청을 35사단이 흔쾌히 수락하여 이뤄졌다.

35사단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농작물 적기수확으로 농가의 근심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35사단은 앞으로도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부녀화로 일손부족이 심화된 농촌의 적기영농을 위해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초여름 무더위 속에서 굵은 팥방울을 흘리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일손부족과 가뭄,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가들의 작물 적기수확을 위해 동참해 준다면 지역농가에 더할나위 없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35사단은 임실군으로 이전한 후 해마다 임실군 공무원들과 함께 일손부족으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와 양파, 양배추 농가들의 적기 수확을 위한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25일 춘향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6·25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원, 6·25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

남원시는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숭고한 애국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5일 남원시 춘향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6·25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기관단체장,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단체 및 전후세대 군장병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육군본부 군악대 공연 및 판소리 식전 공연과 무공훈장 수여, 기념사,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무공훈장 수여에는 6.25 전쟁 당시 전쟁에 참여한 남원 거주

자 6분께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 손승호 장군이 기념행사 당일 참여하여 유공자분들께 직접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군본부에서는 작년 10월 탐문 활동을 실시하여 남원지역 대상자 178명 중 91명을 확인하여 남원지역 거주자 중 6분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남원시가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안보의식을 견고히 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공동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 매아리

NH농협 순창군지부 구림면 속리마을 일손돕기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한재현) 직원 일동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을 돕기 위해 지난 23일 구림면 속리마을 유은수씨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순창군지부는 매년 농번기철에 농촌 현장지원을 위해 일손돕기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날은 노지감자 수확작업을 통해 농작업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한재현 지부장은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일손돕기를 비롯하여 농촌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김병중 화백 문화인물 탐방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남원문화버스 구석구석'이 지난 23일 김병중 화백과 함께하는 미술기행을 시작으로 7월까지 4회 진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문화버스 프로그램은 혼불 문학관, 황산대첩비지 등 남원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했던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남원의 마을 숲을 돌아보는 생태체험을 진행하여 남원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8년에 진행되는 '남원문화버스 구석구석'은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원 출신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분야 저명한 인물들과 함께 이야기와 체험 등 다양한 구성의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김병중 화백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아트센터로 이동하여 동양미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유년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 돌발해충 30일까지 집중방제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방제에 돌입했다.

군은 25일부터 30일까지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산너뽀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 제거에 대한 집중방제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지도도 강화하고 나섰다.

돌발해충 중 가장 밀도가 높고 문제가 되는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림과 과수원을 오가며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해충은 1년에 1세대 발생되어 올 해 지난 새가지에 알을 낳아 알상태로 겨울철을 나며 이듬해 5월 중순이후 부화를 시작해 1령에서 5령까지의 약충 기간을 거쳐 성충이 된다. 8월 중순에서 10월 상순까지 산란을 한 후 생을 마감하는 해충이다.

특히 약충과 성충이 나무를 흡즙하여 영양불균형과 감염병을 일으키고

배설물에 의한 그늘음병 등을 유발, 매를 달아날 새가지에 상처를 내고 알을 낳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는 지난 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봄철 저온으로 인해 부화시기가 20일 정도 지연되었으며 부화를 또한 전년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도에 대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방제를 위해 예전수준의 집중 방제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복숭아, 사과 등 관내 과수원 250ha에 갈색날개매미충 전용 약제를 농가에 공급 완료한 상태다.

월동알이 80% 이상 부화하는 이 시기(1~3령 약충시기)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 이 시기를 및 구역단위로 공동방제 하는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치즈 문화관광아이디어 발표회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 생산지인 임실 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은 임실치즈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임실치즈를 관광자원화 하고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5일 '지역대학생 임실치즈문화관광아이디어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석대학교 호텔관광학과(지도교수 황태규) 학생들이 임실치즈의 새로운 문화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1학기 동안 연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에게는 임실치즈농협에서 제공하는 상금 및 부상이 수여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르티 자격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